

'라이브 훈련' 막은 폭우, 이범호 감독 소통행보는 못 막아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호랑이 군단'의 살전페이스가 비로 늦춰졌다. 호주 캔버라에 스프링캠프를 마련한 KIA 타이거즈가 폭우로 요란한 밤을 보냈다. 13일 저녁부터 시작된 비는 14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번개까지 동반한 비가 쏟아지면서 캔버라 도심이 축축이 젖었다. 다행히 오전 일찍 비가 그친 뒤 캔버라 여름 해가 작렬하면서 선수단은 나라보다 볼파크로 가는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그라운드 훈련은 진행됐지만 준비했던 대로 완벽하게 훈련은 소화하지 못했다. 이날 KIA는 캠프에서 첫 라이브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황동하, 이준영, 윤중현, 김민주, 유승철, 곽도규가 라이브 피칭에 나서 타자들을 마주할 계획이었다. '라이브'는 본격적인 실전 모드로의 전환을 알리는 시작점이지만, 간밤에 내린 비로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못해 라이브 훈련이 취소됐다. 대신 야수들은 웨이트조, 훈련조로 나눠 로테이션을 돌면서 훈련을 진행했다. 투수들은 예정됐던 볼펜 피칭과 컨디셔닝 훈련을 소화한 뒤 웨이트를

볼펜서 투수들 피칭 살피고 타자 배팅볼 직접 모아주고 재활 선수엔 응원의 메시지

위에 버스로 올랐다. 캠프 시제는 늦춰졌지만 이범호 감독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이 감독은 전날 제11대 타이거즈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오전 훈련 이후 선임 결과가 발표되면서 '선수단 미팅'으로 사령탑으로 첫날을 보냈던 이 감독은 이날 경기장을 부지런히 누비면서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앞서 타격 코치로 타자들에 집중했던 이 감독은 볼펜에 자리해 투수들의 피칭을 꼼꼼하게 지켜봤다. 동료들의 볼펜 피칭을 지켜보던 임기영, 이의리와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누며 투수조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 감독은 타자들의 배팅 훈련도 살펴보고 직접 공을 모으기도 했다. 또 재활을 하느라 아직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김도영에게 "다른 타자들을 배팅 치고 들어가는 데 재활하니까 늦게까지 훈련하는 것 아니냐. 아프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하다"며 건강을 강조한 이 감독은 "3년 차에 나보다 훈련 더 많이 칠 수 있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왼쪽)이 14일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최지민의 볼펜 피칭을 지켜보고 있다.

KIA 안방마님 김태균 '신인의 자세로'

"책임감 남다른 시즌이지만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8년만에 홀로 펑고 받았죠"

KIA 타이거즈의 17년 차 베테랑 김태균이 신인의 마음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균은 지난해 극적인 시즌을 보냈다. 류지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로 이적했고, 시즌이 끝나기 전에 다년계약에도 성공했다. KIA 입장에서 경험 많은 김태균을 영입하면서 몇 년간 고민이었던 '안방' 고민을 덜었다. KIA 선수로 처음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그는 '신인'이다. 새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타케시 배터리 코치가 기본을 강조하면서 그는 바닥부터 다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베테랑으로서 이례적으로 홀로 펑고를 받기도 했다. 함성을 지르며 설 새 없이 움직이면서 땀을 흘린 김태균은 "이렇게 공을 받아본 게 8년 만인 것 같다. 단독으로 하면 진짜 힘들다. 상대한테 정확하게 던져야 한다. 정면에서 잡고 정확하게 안 던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기술적인 부분 보다는 야구장 나왔을 때 분위기, 포수가 어떻게 야구장에서 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인의 자세로 돌아간 김태균에게는 책임감도 남다른 캠프다. 김태균은 "다른 캠프보다 마음이 다른 게 큰 금액으로 계약하고 첫 해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야구장 나와서 웃으면서 하지만 나름대로 책임감 있기 때문에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 되면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감이 더해진 캠프, 기대감도 크다. 올 시즌 KIA는 탄탄한 마운드와 뜨거운 화력으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베테랑 김태균은 이런 시선을 즐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시선이 오는 것을 부담감으로 느끼



게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자기의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안 좋고 성적을 못내고 그랬을 때 선수의, 사람의 본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투수들은 안 좋은 성적을 냈을 때도 자기만의 루틴이라든지 그런 걸 지키면서 한결같다"고 이야기했다. 투수와의 호흡이 우선인 포지션. 호주로 오는 비행기에서 보낸 10시간이 김태균에게는 생각을 넓히는 시간이 됐다. 그는 "비행에서 (이)의리랑 같이 앉아서 왔다. '형이 무섭냐'고 물어봤는데 무서운 것보다 잘못했을 때 부드럽게 설명해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직설적으로 하는 모습이 무섭게 느껴진다고 했다. 의리한테는 뭐라할 게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돌아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비행기에서의 10시간이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구나를 느낀 시간이 됐다. 하지만 건방 떠는 순간 큰일 난다고 이야기했다"고 웃었다. 지난 시즌 중반 팀에 합류했던 김태균은 극적이었던 연습 기간과 눈앞에서 '가을 잔치'의 꿈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순간도 경험했다. 온전히 타이거즈 선수로 출발하는 올 시즌 김태균은 지난해 경험이 좋은 보약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김태균은 "우리가 좋은 성적 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캠프를 하는 선수들의 표정과 모습을 보면 팬들이 느끼실 것이다. 지난 시즌 끝나고 선수들은 한 경기 지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144경기를 하면서 40경기는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팬들이 아무리 응원해 주셔도 지는 흐름으로 가는 경기가 있다. 우승팀을 봐도 60패는 한다. 하지만 무조건 잡아야 하는 경기, 흐름이 있다. 지난해 9연승 기간이 있었다.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시즌 말미에 아쉬움이 많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wool@kwangju.co.kr

김우민 이어 황선우까지... 한국 수영 '물 만났다'

황선우 자유형 200m 금메달 세계수영 금2·동2 '역대 최고' 남자 계영 800m 금메달 도전

황선우(강원도청)가 한국 수영의 역대 4번째 세계선수권 금메달이자, 10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우민(강원도청)에 이어 황선우까지 금빛 영광을 펼치면서 한국 수영은 이미 역대 세계선수권 단일 대회 최고 성과를 거뒀다. 메달 획득이 유력한 남자 계영 800m가 남아 있는 터라, 한국은 이번 도하에서 세계선수권 금메달 3개를 거머쥐는 화려한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다. 황선우는 14일 카타르 도하 아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도하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연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5로 우승했다. 이번 대회 한국 수영이 따낸 2번째 금메달이자, 4번째 메달이다. 다이빙을 포함해 이번 대회 한국 수영이 따낸 메달은 14일 현재 금 2개, 동 2개다. 역대 세계선수권 메달은 10개(금 4개, 은 1개, 동 5개)로 늘었다. 지난해까지 세계수영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선수는 박태환(34), 단 한 명뿐이었다. 박태환은 2007년 멜버른과 2011년 상하이 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 멜버른에서는 자유형 200m에서 3위에 오르기도 했다. 2019년 광주에서는 김수지(울산시청)가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여자 선수 중 최초의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 수영은 황선우의 등장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황선우는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아시아기록 및 세계주니어기록(47초56), 자유형 200m 한국기록과 세계주니어

역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국 메달 현황 2월 14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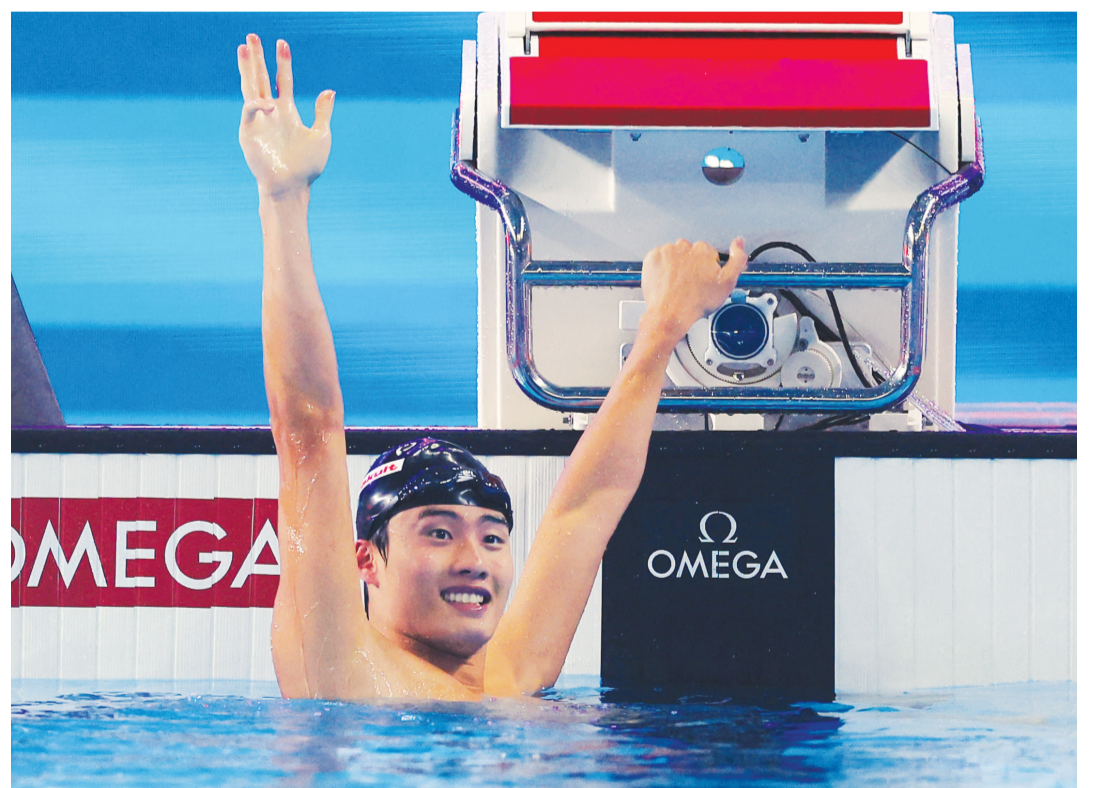
🥇금 4개 🥈은 1개 🥉동 5개

| 연도 | 개최지 | 종목 | 선수 | 성적 |
|------|-----------|-------------|-----|-----|
| 2007 | 호주 멜버른 | 남자 자유형 400m | 박태환 | 금메달 |
| | | 남자 자유형 200m | 박태환 | 동메달 |
| 2011 | 중국 상하이 | 남자 자유형 400m | 박태환 | 금메달 |
| 2022 | 헝가리 부다페스트 | 남자 자유형 200m | 황선우 | 은메달 |
| 2024 | 카타르 도하 | 남자 자유형 200m | 황선우 | 동메달 |
| | | 남자 자유형 400m | 김우민 | 금메달 |
| | | 남자 자유형 200m | 황선우 | 금메달 |

| 연도 | 개최지 | 종목 | 선수 | 성적 |
|------|---------|-----------------|----------|-----|
| 2019 | 대한민국 광주 | 여자 1m 스프링보드 | 김수지 | 동메달 |
| | | 여자 3m 스프링보드 | 김수지 | 동메달 |
| 2024 | 카타르 도하 | 혼성 싱크로 3m 스프링보드 | 이재경, 김수지 | 동메달 |

자료: 국제수영연맹 연립뉴스

기록(1분44초62)을 갈아치웠다. 세계선수권에서는 메달 사냥을 시작했다. 황선우는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2위(1분44초47), 2023년 후쿠오카 대회에서 3위(1분44초42)에 오르며 한국 수영 최초로 '세계선수권 2회



황선우가 14일 카타르 도하 아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도하 세계수영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립뉴스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도하에서는 3회 연속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황선우는 세계선수권 금·은·동메달을 모두 손에 넣은 최초의 한국 선수로도 기록됐다.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우승한 것도 한국 최초다. 김우민은 지난 12일 이번 대회 경연 종목 첫 금메달이 걸린 남자 자유형 400m에서 3분42초71로 우승했다.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나온 한국인 세계선수권 챔피언이었다. 대회 초반에 열린 다이빙에서는 김수지가 여자 3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 이재경(인천시청)과 호흡한 혼성 싱크로 3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연거푸 따냈다. 종전 한국 수영의 단일 세계선수권 최다 메달 획득 기록은 2007년 멜버른 대회에서 작성한 2개였다. 박태환이 당시 남자 자유형 400m에서 1위, 자유형 200m에서 3위에 올랐다. 도하에서는 이미 4개의 메달을 수확해 역대 최고 성적을 일찌감치 달성했다. 단일 세계선수권 최초로 금메달 2개를 따는 쾌거도 이뤘다. '개인 종목 세계선수권 챔피언' 황선우와 김우민이 이호준(제주시청), 이우연(고양시청)과 힘을 합친 남자 계영 800m에서도 한국의 메달 획득이 유력하다. /연립뉴스